

특허청, 산업기술보호협회와 손잡고 영업비밀·기술유출 철통 보안 나선다

-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간 업무협약(MOU)·공동교육 진행 -

특허청(청장 김완기)은 11. 20.(수) 14시 30분 삼성호텔(서울 강남구)에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-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 기업 등의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영업비밀·국가핵심기술 유출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.

국가정보원에 따르면, 최근 5년간('20~'24.8월) 해외로의 기술유출 시도가 97건에 달하고 유출되었을 경우 피해규모가 23조원으로 추산되는 등 우리 첨단기술 유출 피해가 큰 상황이다. 유출 수법도 국내에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우리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등 지능화·고도화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역량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보호 인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▲공동 교육·발표회(세미나) 운영, ▲정보공유와 인적교류 확대, ▲지식재산 및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연구 공동수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.

공동교육에서는 기업, 대학·공공연 등을 대상으로 ▲영업비밀 유출 예방을 위한 대비책과 유출시 대응방안, ▲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방안과 관련 판례, ▲우리 산·학·연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했다.

김완기 특허청장은 “우리 기업들의 영업비밀과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고,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”며, “앞으로도 특허청과 관련 전문기관들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※ 붙임: 영업비밀·산업기술 보호 MOU 및 공동교육 개요

※ 사진은 행사 종료 후 배포 예정(16시 이후)

담당 부서	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	책임자	과 장	김준경 (042-481-5182)
		담당자	사무관	오세진 (042-481-3573)
			주무관	이영은 (042-481-5455)

1 행사 개요

- (일시·장소) 2024. 11. 20.(수) 14:30~17:50
- (장소) 삼정호텔 2층 제라늄홀 (강남구 봉은사로 150, 티타임 장소 : 1층)
- (참석) 특허청장,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정양호 회장·전재현 상임 부회장,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, 산·학·연 IP담당자 등 120여명
- (주요내용)
 - ①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·산업기술 보호 협력을 위한 MOU*
 - * 업무협약 주요 내용 :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·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공동 교육·세미나 운영, 인적교류·정보공유, 사업·연구 공동수행 등
 - ② 산·학·연의 영업비밀,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한국지식 재산보호원과 한국산업기술협회 간 공동 교육

2 세부 일정

시 간	내 용	비 고
개 회 식		
14:30~14:50('20)	• 환영사 (특허청장)★	
	• 축사 (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)	
	• 영업비밀-산업기술 보호 협력 MOU	보호원-산업기술보호협회
	• 기념촬영 (특허청장, 보호원, 산업기술보호협회)★	
교 육		
14:50~16:10('80)	• 영업비밀 유출 예방 교육 - 관련 최신 판례 소개, 영업비밀 사전 예방 및 유출 시 효과적인 대응 방안	법무법인 율촌 이용민 변호사
16:10~17:30('80)	• 국가핵심기술 유출 예방 교육 -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사전·사후 조치, 관련 사례·판례 소개, 산보협 지원사업 안내	산업기술보호협회 이상노 팀장
17:30~17:50('20)	• 영업비밀보호센터 지원사업 안내	영업비밀보호센터 진병욱 팀장